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 9.2 노정환의 이행-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확충! 산별교섭 정상화 제도화!

# 투쟁속보

## 파업13일차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 안암 그리고 구로병원에서 보여준 우리의 단결력! 이제 안산병원으로 모이자!!

**의료원이 우리를 또다시 모이게 했다!  
조합원 총단결로 총파업 승리하자!**

23일 오후3시 사측과 진행된 실무교섭은 의료원의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만큼 의료원이 제시한 임금인상분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어찌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조합원의 절규  
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네 명의 조합원이 용기를 내어 전해준 현장의 모습은 이미 벼랑 끝 그 자체였다. “건물 증축으로 관리해야 할 장비와 시설물이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인력 충원이 없다”며 호소한 시설팀 조합원, “동기들이 모두 아파서 그만됐다고 어디에 말할 수 없는” 간호사 조합원, “더 이상 고대병원에서 가여운 존재이고 싶지 않은” 간호사 조합원, “대기중인 이송요청이 100개가 넘어가는건 일상이고 환자 검사로 인한 대기시간도 보호요원만 뺀다”며 보호요원 직종의 어려움을 전한 조합원.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려한 건물 외관, 역대 2위 당기순이익에 1만여 직원들의 눈물이 감춰져 있다. 의료원은 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우리지부는 또다시 구로병원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 안암에 이어 구로병원 로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 조합원이 모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전했다. 송은옥 파업대책본부장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처우 수준과 근로환경은 단기간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원이 말하지 않아도 현장의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직원들을 향해 “두 차례에 걸친 의료원의 담화문을 보면 의료원이 노동조합을 직원들을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무지한 집단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꼬집으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기파업 유도! 불성실 교섭규탄! 사용자 결단 촉구!**

## 고대의료원지부 3차 총파업 대회

일시 및 장소 : 2023.7.26.(수) 오전 11시 안산병원 본관 로비